

### 선학원 정관 회복 놓고 조계종·선학원 '설전'

각각 결의문·성명서 내고 비판

조계종과 선학원 이 장의 설전을 이어  
가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9월  
22일 열린 41차 회의에서 선학원 정상  
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선학원의  
설립주체는 조계종단입니다'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선학원이 승려중 발급과 수  
계산금 등을 시행한 것을 두고 "이는 조  
계종단이나 설립한 선학원에 대한 연구  
를 부정하고, 그 권한을 찬탈하려는 해  
종행위임과 동시에 파승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학원 본원과 포교원  
의 종단 소속 스님들에게 탈종을 막으려  
는 종단의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  
했다.

이에 선학원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의 집단 성명은 불법 판결을 겁박하는  
비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선학원은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선  
학원은 선사 스님들의 설립취지를 받들  
어 한국불교의 선맥을 면면히 이어가도  
록 지원해 왔다"면서 "그러한 명백한 역  
사적 사실을 왜곡해 조계종은 이번에도  
'선학원의 설립 주체는 조계종이었다'  
고 집단성명을 작성해 재판부를 겁박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 청소년 포교 활성화 공모전 결과 발표

파라미타 '조계종 취업센터' 대상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 공모전이 막을 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대행 송묵)은 9월  
2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  
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어린이·청  
소년(대학생 포함) 포교활성화 방  
안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했다. 지난 6월 15일~8월 14일 모집기간  
동안 총 15팀이 응모해 1차 서류심사서  
개인 3명, 단체 5곳이 통과했으며, 이  
중 총 3팀이 최종 수상했다.

수상작은 대상 1팀 (사)파라미타청  
소년연합회의 '조계종 취업지원센터' 과  
최우수상 2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  
대의 '자따마파 1박 2일' △한국스카우  
트 불교연맹의 '어린이청소년 인성  
함양캠프'가 최종 선발됐다. 상금은 각  
각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  
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파라미타의 '조계종  
취업지원센터'는 종단 차원 취업지원  
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청년 불자들의  
구인·구직 활동을 도움으로써 불교 인  
재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박아름 기자**

# 화쟁위원회 역할 두고 '치열한 날선 공방'

## 9월 22일, 화쟁위-아카데미 '화쟁좌담회' 개최

화쟁(和諍)의 진정한 의미와 사회 적용  
법을 찾으며 마련된 '화쟁좌담회'가 실  
상 화쟁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에 '화쟁위는 본연 역할에  
충실한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  
며 화쟁을 논하는 자리에 '정(靜)'만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와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 조  
성택)는 9월 22일 서울 안국동 화  
쟁문화아카데미에서 '화쟁좌담회-화  
쟁(和諍)을 화쟁하다'를 개최했다. 이  
번 좌담회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최  
근 모 일간지 기고를 통해 '도법 스  
님의 화쟁론'을 전면 반박한 것이 단  
초가 돼 열렸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진행  
자로 나선 이날 토론자로 도법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우희중 서울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정웅기 북대포살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2부의 화두는 '종단 내부 문제를 대  
하는 화쟁위 태도'에 대해서였다. 박  
병기 교수는 "사회적 사건에 대해 중  
재자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화쟁위  
가 종단 내부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화쟁은 중재 입  
장만 취해선 안 되고 당사자 입

장에도 서야 한다. 내부 문제를 다루  
는 데 있어서 '온전한 중재자'로서 입  
장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에 도법 스님은 최근 발생한 의현  
스님 재심사건을 예로 들며,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사안을 화쟁위에 요구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종단  
내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  
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  
은 불가능하다. 관념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  
으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응  
답했다.

이에 이도흠 교수는 "현 상황에서  
도법 스님은 2인자 역할이다. 독재자  
가 총리, 장관 등 인기 있는 사람을 내  
세워 정권을 유지하듯 국민 여론을 호  
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희중 교수도 "도법 스님이 종단  
내부 문제를 화쟁으로 풀어가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며 "종단 내  
갈등해소가 화쟁으로 되지 않는다면  
화쟁위는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쟁위 '문제 해결'이 없다  
이에 앞서서는 쌍용차 노조문제, 4대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화쟁문화아카데미는 9월 22일 서울 안국동 화쟁문화아카데미 3층 란스튜디오에서 '화쟁좌담회-화쟁(和諍)을 화쟁하다'를 개최했다.

문제 등 종단 외부 사안에 대한 화  
쟁위 역할 평가도 이뤄졌다. 정웅기  
위원은 "우리 사회서 강자들은 대  
화를 원치 않는다"며 "이들과 싸우  
다 지친 약자들의 요청으로 종교계  
가 강자들과 대화를 이끌었다. 여  
러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 완벽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성과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도흠 교수도 화쟁위가  
기득권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 것은  
큰 성과라고 주목했다. 그러나 사  
회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화  
쟁을 개시개비(皆是皆非, 모두  
옳고 모두가 그르다)로써 관념적  
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비대칭적  
인 권력관계를 대칭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약자

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화쟁, 사회적 적용 어떻게?

화쟁사상의 사회적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어떤 상황  
에서도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화쟁이 가능하다"는 의견  
과 "좋은 게 좋은 개시개비 사고  
는 관념일 뿐이다. 구조적 모순이  
해결돼야 화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도법 스님은 "실상에 대한 무지  
에서 싸움이 시작된다. 모두에게  
실상을 잘 알리고 공감, 수용  
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힘의 불균형 속에서도 화쟁  
하겠다는 의지와 역량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희중  
교수는 "대립 상황에서 문

제점은 개선하지 않은 채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화쟁을  
진행한다면 일종의 포장이고  
기만이다"며 "원만한 화쟁을  
위해서는 대립상황에 개입된  
구조적 탐욕과 의도의 실상을  
배제하는 선행 작업인 파사  
현정(破邪顯正)이 필요하다. 도  
법 스님은 이 점을 간과했다"고  
반문했다.

이에 조성택 교수는 "옳고 그  
름을 먼저 판단하는 파사는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화쟁이 전제된 뒤 파사를 논  
해야 한다. 다수의 옳음이 존재  
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도흠 교수는 도법 스님과 조  
성택 교수의 주장이 관념적 차  
원에 머무는 뿐 실질적 해결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 우려  
했다. 이 교수는 앞서 도법 스  
님이 장님 코끼리 이야기를  
비대 "눈을 가리고 서로 코끼리  
모습이 다르다 싸우는 사람  
들의 안대를 풀어 주면 같은  
실상을 보고 화해하게 될 것"  
이라 말한 것에 대해 "만약 안  
대를 누군가 풀지 못하게 억  
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억압과 권력이  
개입된 상황 속에서 개시개비  
는 아무 소용이 없다. 구조적  
모순에 대한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재자가 개시개비  
관념을 넘어 상황에 공감하  
는 연기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청정 승가 구현, 공동체 회복 지름길"

### '승가공동체 회복' 주제로 조계종, 7차 100인 대중공사

### 승가 불신 원인 '청정성 상실' 범계 행위 신속한 징계 필요

세속화로 무너지고 있는 승가공동  
체 회복을 위해 사부대중이 머리를  
맞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23  
일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수  
행풍토 진작과 승가공동체 회복'  
을 주제로 제7차 사부대중 100  
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7차 대중공사의 주제별 토  
론은 승가청규를 중심으로 본 바  
람직한 승가상, 현대사회가 요  
청하는 승가공동체, 범계행위  
에 대한 승가공동체 대응방안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출가와 재가  
를 나눠 6개 모둠으로 진행했다.

승가청규를 중심으로 본 바람  
직한 승가상을 주제로 토론한 스  
님들은 승가를 불신하는 원인을  
'청정성의 상실'에 있다고 봤



조계종은 9월 23일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수행풍토 진작과 승가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제7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바라이죄에 대해 명징한 징계  
△범계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신속한 징계 △승가 청규의 대  
중적인 실천 △승가 소유의 문  
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오전 개회식에서는 6  
차 대중공사 논의 결과를 발표  
했다. 이에 따라 △

사부대중 각자의 책임과 역할  
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  
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  
한다 △비구니, 재가자의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제  
도화한다 △사부대중이 참여  
하는 대중공사를 교구본사 및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등의 내용이 정리됐다. **신성민 기자**

## "산악관광진흥법 당장 철회하라"

조계종, 23일 성명 발표 및 철회 의견서 전달

"정부는 기업체 등에게 각종 특혜와  
특례를 부여해 가며, 오로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전국토의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있다. 산악관광진흥  
구역법률을 철회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산악관광진흥법)  
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불교계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는 9월 23일 발표한 성명서  
를 통해 "문체부가 입법 예고  
한 '산악관광진흥법'은 산악  
관광 시책 강구, 기업 규제완  
화, 세금과 부담금 감면, 기  
반시설 비용지원, 토지 수  
용권한 부여 등 각종 특혜로  
점철돼 있다"며 "국토를 보  
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  
토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위는 "우리나라 국토의 64%  
를 차지하는 산지는 국토 보  
존 등을 위해 역대 정부가 수  
십 년 동안 다양한 규제를  
통해 보호해 왔던 곳"이라며  
"정부가 각종 특혜 조항 등을  
통해 기존에 지정된 군사지  
역, 백두대간 등 법적 보호지  
역조차 막무가내

로 개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름다운 강산에서 강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아름다운  
산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산  
악관광진흥법'을 즉각 철회하  
야 한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9월 23  
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 등  
관련 부처 130곳에 제출하  
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산지 내 전  
통사찰과 문화재 사찰 등의  
수행환경 훼손 및 피해 △사  
업 시행 방식에 수용, 사용,  
환지, 혼용 등의 개념 혼재로  
인한 재산 피해 △개경으로  
인한 개발 대상 확대 및 케  
이블가 사업과의 연계 가능  
성 △사업시행자(민간사업  
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적용 △산지·산림에 비  
전용 기관인 문체부가 관련  
업무에 담당하는 주무부  
처인 것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UNESCO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 제4회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 의승군 추모 수록대재 및 무차대법회

### 장경사 구절초 음악회

2015.10.11(일) 9:00 - 18:00

### 남한산성 장경사 경내

12700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676  
tel 031-743-6547-8, fax 031-744-9197

- 1부 : 시련·대령의식
- 점심공양
- 2부 : 상단·중단의식
- 3부 : 제4회 남한산성 의승군 수록대재 및 무차대법회 (14:00 - 15:00)
- 4부 : 하단의식·봉송/회향 (15:00)
- 5부 : 장경사 구절초 음악회 (16:30 - 18:00)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UNESCO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4회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앞장서신 의승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희생되신 의승병들의 넋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주무주의 고혼들을 천도하여 사회의 소통과  
안정에 기여하고자 의승군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중한 법원을 이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최 | 세계속의 경기도 광주시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장경사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장경사 주지 진광 합장

